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안내**
7월 달부터 화요일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본당 울뜨레아**
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 **양로원 미사**
이번 달 양로원 미사는 없습니다.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10월 24일(목) - 27일(일)에 남성 꾸르실료 교육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봉사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주제 :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일시 : 8월 14일(수) - 18일(일)
참가비 : \$480 선착순 : 50명
자세한 내용은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자매님께 문의바랍니다.
- **2019년 북미주 성령대회**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9시 - 오후 9시 30분
7월 21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 점심, 저녁, 일: 점심 포함, 강의녹음 USB)
신청 마감일 : 7월 14일(일)
문의 :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1) 글로리아 구역 : 7월 21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권명자 율리안나 자매님, 권수희 사비나 자매님 주관)
2) 마리아 구역 : 7월 28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황선동 스테파노, 황태영 카타리나 가정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장례 일정**
김영순 스텔라 자매님의 장례 일정입니다.
일요일 :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연도 및 Viewing (Bradly funeral Home)
월요일 : 오전 10시 - 11시 연도 및 Viewing (소성당)
월요일 : 오전 11시 장례 미사 (대성당)
묘지 : Locustwood Memorial Park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평협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제1독서	신명기 30, 10-14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제2독서	콜로새서 1, 15-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지웁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 루카 10, 25-37
봉헌성가	15번 주님을 찬미하라
성체성가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퇴장성가	402번 세상은 아름다워라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오늘의 묵상

당시 율법 학자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율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 학자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일부 피조물만의 만이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시고, 일부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걷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에 서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이,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이웃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어야 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15주일 7월 14일	연중 제16주일 7월 21일	연중 제17주일 7월 28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명자 율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헌자	최미라, 노영순	문혜숙, 김성욱	백윤기, 허인선

우리들의 주일정성

< 7월 7일(일) >

봉헌금 \$452.00
교무금 \$600.00
안우풍(7-9), 황선동(10-12)

예물봉헌 \$11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110.00

Total \$1,272.00